



식품의약품안전처

보 도 자 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5. 31.(화) 9:00 (당일 석간 보도 가능)	배포 일시	2022. 5. 31.(화) 9:00
담당 부서 <총괄>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 규 (043-719-3203)
		담당자	사무관 조문래 (043-719-3205)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 합동점검 실시

- 식약처·해수부·지자체 합동, 생산 및 유통·판매 단계별 관리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름철 다소비 수산물의 생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합니다.

* 검사항목 : 비브리오균(비브리오패혈증균, 비브리오콜레라, 장염비브리오), 중금속, 동물용의약품(항생제 등)

이번 점검은 해수온도가 18℃ 이상으로 올라가는 초여름부터 비브리오 패혈증균, 장염비브리오균 등의 증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생산·유통단계에서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수산물 출하연기, 회수폐기, 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부적합 정보를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 (생산단계)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장 등에 대해서는 동물용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지도·점검하고, 양식장, 위판장, 공판장 등의 수산물은 수거·검사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유통단계) 수산물 도매시장과 보관창고,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보관기준 준수 여부, 취급자 개인 위생관리 등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하고, 유통 수산물에 대해서도 안전성 여부를 검사*합니다.

* 검사항목 : 비브리오균(비브리오패혈증균, 비브리오콜레라, 장염비브리오), 중금속, 동물용의약품(항생제 등)

정부는 수산물의 안전한 구매·섭취를 위해 소비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수산물 위생관리 요령을 안내합니다.

☞ 수산물 위생관리요령 주요 내용 ☞

- 신선한 수산물을 구매한 후 5℃ 이하로 냉장보관
- 손은 30초 이상 깨끗한 물로 씻기
- 수산물은 흐르는 수돗물로 2~3회 정도 깨끗이 씻기
- 만성간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가열 조리(85℃ 1분 이상)한 후 섭취
 - * 패류는 껍질이 열리고 나서 5분 동안 더 끓이고, 증기로 익히는 경우 9분 이상 더 요리
- 조리기구(칼, 도마 등)는 소독(열탕처리 등)하고 전처리용과 헹감용으로 구분 사용
- 수산물을 다룰 때는 장갑 착용

정부는 수산물의 위생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 위생관리 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참고로 비브리오패혈증균 예보와 단계별 대응요령 정보는 ‘비브리오 패혈증균 예측시스템’(vibrio.foodsafetykorea.go.kr/main)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브리오패혈증균 예측시스템 : 해수온도, 유속 등 환경인자와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과의 상관관계수(R2)를 이용한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관심, 주의, 경고, 위험 4단계로 예보하는 시스템

담당 부서 <총괄>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 규 (043-719-3203)
		담당자	사무관 조문래 (043-719-3205)
담당 부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안전과	책임자	과 장 장옥진 (051-400-5690)
		담당자	사무관 이승완 (051-400-5695)

□ 비브리오 패혈증균 예측시스템이란?

비브리오 패혈증균 발육에 영향을 미치는 바닷물 온도, 염도 등 환경인자와 과거 비브리오균 검출이력 정보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해역별 해수 교환율(유속)을 반영하여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가능성을 예측하여 관심, 주의, 경고, 위험 4단계로 예보하는 시스템

□ 운영체제



□ 비브리오패혈증균 예측 시스템 접속화면(vibrio.foodsafetykorea.go.kr/main)

